

후삼국시대 궁예정권의 연구*

— 지명설화로 본 궁예정권의 최후 —

李 在 範**

1. 서 론
2.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와 특징
3. 정사류와 구비전승의 비교를 통한 궁예정권의 최후
4. 결 론

1. 서 론

궁예정권에 관한 연구가 심도를 더해 가고 있다. 2006년에는 궁예정권의 군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성과가 나왔다.¹⁾ 뿐만 아니라 궁예정권과 태봉에 관한 현재의 연구수준을 반영한 문헌사적 연구결과와 그동안의 고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제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교수

1) 신성재, 『궁예정권의 군사정책과 후삼국전쟁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강문석, 『철원환도 이전의 궁예정권의 성격』,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8.

고학 및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한 보고서도 간행되었다.²⁾

궁예와 궁예정권의 역사가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궁예정권의 여전한 난제는 사료의 빈곤이다. 궁예정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사류 문헌사료가 부정적 일변도였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가 전부였다. 그 결과 궁예와 궁예정권의 연구는 포악한 군주에 의한 과도적 정치권력이라는 인상만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보고서나 기존 비역사학계에서 거론되었던 궁예 관련 구비전승에 관한 내용들은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구비전승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정사류의 인식과의 괴리는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로 남는다.³⁾

정사류의 편찬은 국왕의 입장에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술된 것이다. 왕권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 세계가 개방되고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고 각 지역마다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어서 왕조의 정통성을 옹위하던 정사류의 신빙성과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미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구비전승이나 현지인의 기억에 의한 자료들이 역사의 재구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중세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왕조에서 간행한 정사류의 문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려사는 개성사, 조선사는 한양사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본고는 한 지역에서 구비전승된 기억들을 어떻게 왕조사 또는 통사와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고민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상당한 기간 궁예와 철원, 그리고 포천을 비롯한 지역에 남아 있는 궁예관련 구비전

2)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3) 조현설, 『궁예이야기의 전승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13집, 1995.

승에 관심을 가져왔다.⁴⁾ 이러한 작업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⁵⁾ 그러나 학문분야의 특성상 이를 역사의 재구성으로까지 연결하지는 못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궁예와 관련된 구비전승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 정사류와 비교 분석하여 궁예와 궁예정권의 최후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밝혀 보고자 한다.⁶⁾ 미리 언급하자면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교체기 상황을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비전승을 사료로서 인용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가는 작업이지만,⁷⁾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중앙의 정사류 자료와 향토의 구술 자료가 상호 소통을 통하여 객관성을 갖는 역사상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리한 시도임을 알지만, 이러한 작업이 구비전승에 대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와 특징

먼저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지역은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 정사류에 수록된 설화적 내용들과 다른 것들이 전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궁예와 관련된 설화가 가장 많은 곳은 철원이다. 이곳은 궁예가 대궐을 지어 거주하였던 곳을 고궐리라고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관련된 지명, 설화가 많다. 그 이외의 지역으로는 포천, 안성이 궁예관련 설화가 많다. 이러한 궁예관련 자료를 집성한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궁예관련 구비전승과 관련된 유물유적은 현재 행정 구역상 경상남북도를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 따르면 궁예관련 유물 유적은 6개도 23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다.⁸⁾

그러나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는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정사류에 나타나는 설화나 사실과 관련된 지역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지의 구술이나 읍지 등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는 유적 일람표와 함께 유적 개황을 소개해 두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현지 구술 및 읍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궁예관련 설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궁예의 활동 지역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요약된 표에 따르면 설화의 양적 분포는 철원, 포천, 평강, 안성 순이

4) 이재범, 『역사와 설화사이』, 『강원민속학』 20집, 2006.

5)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 역사문화유적』, 2006.

6)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설화의 역사적 복원이 유인순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그는 관련설화들을 모아 '왕위 찬탈과 탈출, 복권을 위한 항쟁'(『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 역사문화유적』, 2006, 177-179쪽)이라는 장에서 처음 시도하였다.

7) 본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방의 구술자료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용된 사례는 보인다. 윤용혁(『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은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삼별초의 宋徽(183-185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망바위'를 삼별초군이 땅을 보던 장소(214쪽의 주30), 배중손의 최후 항전지를 남도성(216-217쪽)으로 간주하고 있다. 배중손의 죽음에 대해서도 '구전적인 현지인들의 믿음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229쪽)라는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8)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09-210쪽. 본고에서 철원의 지명에 있어서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를 저본으로 한 것은 필자가 이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하였고,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 앞서 기초 작업으로 『태봉·궁예관련 사료조사연구』(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를 실시한 바가 있어서이다.

다. 다른 지역은 1~2건 정도이다.

그런데 궁예의 출생과 관련된 설화는 어느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다.⁹⁾ 『삼국사기』에 외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전부이다.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¹⁰⁾ 이와 관련된 설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궁예관련 설화는 그의 성장기부터 나타난다. 그의 성장기와 관련된 설화는 안성 지역에서만 찾아진다. 정사류에서는 모호한 부분이며, 단지 '흥교사는 지금의 세달사'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¹¹⁾ 그렇지만 안성에 비정한 예는 없다. 그런데 설화상으로는 안성에서만 발견된다. 현행 학계의 통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안성의 설화 가운데는 처음 궁예가 피해서 왔다고 하는 곳이 있다. 진골인 궁예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진촌리가 있고, 마주 보이는 곳에 있는 강촌리는 궁예의 처 강씨부인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곳에서 쌍미륵사 방향으로 가다보면 왕자골이 나온다. 그리고 칠장사는 궁예와 그의 유모가 50여일 걸어 와서 살았다고 하는 곳이다. 칠장사의 명부전 뒤에 있는 궁지는 궁예가 활을 쏘는 연습을 하였던 곳이라고도 한다. 굴암사도 궁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안성의 국사암에는 궁예 미륵이라고 불리우는 삼존불이 있다. 이 일대에서는 이 미륵이 궁예와 그의 두 아들인 신광보살과 청광보살이라고 한다. 이처럼 안성에서만 궁예의 성장기와 관련된 설화가 나타난다.

한편 궁예의 전성기와 관련된 설화는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다른 지역

9) 궁예와 관련된 설화의 전반적인 시기 구분은 이미 시도한 바가 있다(이재범, 『역사와 설화사이』, 『강원민속학』 20집, 2006).
 10) 5월 5일에 외가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그 때 지붕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중요일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있습니다. 또 광염이 이상하였으니 장래 국가에 이롭지 못할 듯합니다. 기르지 마옵소서” 하였다(『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11) 현재 세달사 부근으로 영월 일대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장준식, 『세달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11·12·13호, 1999).

보다도 철원에 전성기때의 지명이나 유적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궁예도성이 있다. 그리고 어수정이 있다. 궁예가 물을 먹었다고 하여 붙여졌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궁예도성과 어수정은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아직 발굴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대가 궁예도성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밖의 지명으로 뱃가리소(沼)는 궁예의 군사들이 물을 길어 먹었다고 하는 곳이다. 군사들의 양식을 쌓아 두었다고 하는 군량동이 있다. 이 밖에도 철원에는 그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지명들이 남아 있다. 궁예바위는 명성산 정상 부근에 있는데, 이곳에서 궁예도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였다고 한다. 마명동은 궁예때 군사에 사용할 말을 먹이던 곳으로 말울음이라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무금동은 궁예가 군사용으로 무기를 제작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성모루는 궁예때 군마 사육과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성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장수나들은 궁예 당시 장수들이 말을 타고 가며 훈련을 하였던 곳이라 한다. 장수들이 나들던 곳이라 하여 이러한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활터개가 있다. 궁예때 활을 쏘던 곳이라고 한다. 철원은 전성기를 알려주는 명승지도 있다. 양천은 궁예가 遊觀했던 휴식처로 알려졌다. 북관정이 있다. 이곳은 궁예가 즐기던 정자이다. 동막동은 궁예의 군영이 있었던 곳이다.

평강군에는 사청산이 있다. 궁예가 무예 훈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곳이다. 문과장이 있다. 궁예가 과거를 실시했다고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최초시행은 고려 광종때라고 하는데, 궁예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어떻든 궁예때 문과를 실시했다는 설화가 있는 것은 흥미롭다. 전쟁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내치가 활발했었다는 표현이다. 완이정은 궁예가 기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진중평이 있다. 진중평은 궁예의 적전이라고 한다.¹²⁾ 적전은 왕이 몸소 농경을 했다는 장소이다.

포천군에도 궁예의 전성기와 관련된 지명이 있다. 남창동은 궁예가 군대

12)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308-310쪽. 『平康郡誌』, 1943년.

를 거느리고 공격할 때 사용할 군량미를 비축하였던 곳이다. 강원도 양구에는 군량동이 있는 데, 궁예가 맥국을 정벌할 때 군량을 운송하는 길이었다고 한다.¹³⁾ 파주의 금파리에는 성지가 있는데, 궁예가 철원에서 피신하여 거주하면서 쌓은 성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궁예 혹은 왕건의 이궁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 부근의 치마대는 궁예가 군사를 독려했다는 곳이다. 연천에는 미래가 있다.¹⁴⁾ 궁예는 조수의 영향을 이용하여 수운을 고려했는데, 이때 여러 명이 힘을 모아 배를 밀며 언덕을 넘어 다녔다고 한다. 이때 밀어라고 하여 밀어고개라고 했던 것이 미래고개로 바뀌었다고 한다. 경기도 풍덕에는 임해관이 있다.¹⁵⁾ 이곳은 궁예의 수군기지가 있었다고 한다. 왕건이 전라도에 수군을 거느리고 갈 때 이곳에서 수리를 했다고 한다. 충청북도 청주 정북동토성은 궁예가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궁예의 전성기때와 관련있는 지명으로 여겨지는 지역들은 대개 철원을 중심으로 포천, 평강, 파주, 연천, 풍덕 등지로 그의 전성기때의 활동무대인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일정한 공통점을 갖는 것은 철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역들이라는 점이다.

한편 각 지역들도 특징이 있다. 철원은 궁예의 도읍지답게 궁예도성을 비롯하여 정자가 있기도 하지만, 군사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하면 평강은 문과장, 적전 등 궁예가 통치자로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쳤던 흔적을 말해주는 것들이 있다.

이와 함께 포천, 철원과 평강에는 궁예와 왕건이 전투를 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지명이 많아서 이채롭다.¹⁶⁾ 그리고 이 세 지역의 전투와 관련된 지명들은 특징을 갖는다. 포천일대에 남아있는 지명은 전투의 과정을

13)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303쪽. 『輿地圖書』, 강원도 양구 고적.

14)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1쪽.

15)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30쪽.

16) 전투와 관련된 지명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알려주는 반면, 철원에 남아있는 것들은 궁예의 피신과정을, 그리고 평강의 지명들은 궁예의 최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안변에는 궁예의 묘가 있다.¹⁷⁾

이처럼 포천, 철원 및 평강 일대에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설화가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궁예는 궁예도성의 남쪽에 있는 월하리 왕건의 사저에서 바로 공격을 개시한 왕건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 때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궁 앞에서 궁예를 몰아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궁예가 최후를 맞게된 지역이 철원 일대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궁예는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명칭도 '철원경'이라고 하였다.¹⁸⁾ 자연스럽게 이 일대가 주요한 전투장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명과 관련하여 이 지역이 궁예와 왕건이 전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일대에 있는 궁예와 관련된 지명을 근거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로 간주되어 왔다. 중앙에서 편찬한 사서나 지리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관찬사서에 없다고 해서 1,000년 이상 구비전승되어 온 이야기가 전부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 점은 단군설화를 비롯하여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를 역사 사료로서 취급하는 것에 비하면 궁예설화는 상당히 편파적인 취급을 받아왔다.¹⁹⁾ 그런데 궁예설화는 누군가의 조작으로 보기에 몇 가지 점에서

17)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것이 궁예의 묘이다. 궁예의 묘로 전하는 것이 바로 평강 북쪽의 안변 일대에 있다. '궁예묘는 부 서남쪽 120에 있다. 위익사 삼방로 왼쪽이며 석축이 여러 길이가 되고 높다란 형대가 있는데 지금은 반이 무너졌다(『輿地圖書』 함경도 안변 능묘). 대동지지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大東地志』 권19 함경도 15읍 안변 능침).

18) 이재범, 「궁예정권의 철원정도시기와 전제적 국가경영」, 『사학연구』 80, 2005.

19) 김두진이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는 생생한 역사적 진실을 전한다. 설화로 된 사료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신이한 신앙이 더 차가되기도 했지만, 원래의 모습 중 탈락되는 면도 있었다. 그것은 고대의 역사적 개별사실이 고려 중기사회에서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또는 처음 작성될 당시에 윤색된 면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가 구체적 역사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데에는 부족할지라도 작성자에 의해 윤색된 부분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탈락되면

일정한 역사적 진실을 말한다고 할 특징이 있다. 궁예관련 설화의 특징은 집중성과 구체성, 그리고 통일성이다. 집중성이란 지역적으로 같은 시기의 설화가 집중되어 있다. 성장기=안성, 전성기=철원, 전투=포천, 최후=평양이라는 마치 도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다음 구체성은 전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칭 또는 전투 방식, 이동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성은 지역과 시기가 통일되어 있다는 뜻이다. 단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생생한 전투기사가 마치 의도대로 작성한 것처럼 현재까지 구전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정사류의 내용들은 문자의 형태로 처음 편찬자의 의도가 보관이 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왔다. 그 보존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은 보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구비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나마 후대에 알려야 한다는 의식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 내용은 마치 계획적으로 저술이라도 한 것처럼 통일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점에서 구비전승이라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정사류와 구비전승의 비교를 통한 궁예정권의 최후

구비전승으로 궁예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은 이미 있었다.²⁰⁾ 구비문학 분야에서 이미 있었는데 필자와 다소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 본장에서는 정사류에 소개된 내용과 구비전승과를 비교하여 궁예의 최후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1) 정사류에 기록된 궁예의 최후

정사류에 나타난 궁예의 최후는 갑작스러운 것으로 표현된다. 『삼국사기』 견훤전과 연표에는 궁예의 최후가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 서술되고 있다.

A-1. 정명4년 무인(918)에 철원경 사람들의 마음이 홀연히 변해 우리 태조를 추대해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견훤이 이 말을 듣고는 가을 8월에 일길찬 閔邵을 보내 축하를 표하고, 이어 공작선과 지리산의 대나무 화살을 바쳤다.²¹⁾

A-2. 6월에 궁예의 휘하 인심이 홀연히 변하여 태조를 추대하니 궁예는 도망하다가 아랫사람에게 피살되고, 태조는 즉위하여 연호를 칭하였다.²²⁾

위의 두 기사는 모두 궁예가 철원경의 인심이 변하여 갑자기(忽變) 몰려나고, 왕건이 추대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음을 말하고 있다. A-1과 A-2의

서 역사적 진실을 거침없이 들어내준다. 실성왕이 고구려 군사들에게 살해되었다거나 또는 진지왕이 국인에 의해 폐위되었다라고 함은 물론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다”(『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사료적 가치』, 『구비문학연구』 제13집)라고 한 것이 참고된다.

20)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 『삼국사기』 권50 견훤열전.

22)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12 경명왕 2년, 『삼국사기』 권31 연표(하).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A-2의 내용에는 궁예를 죽인 자가 부하라는 내용이 더 있다는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 설명은 『삼국사기』의 견훤전과 연표를 답습한 『삼국유사』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B-1. 정명4년 무인(918) 철원경의 衆心이 갑자기 변하여 우리 태조를 추대하였다. 흰이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였다. 그리고 공작선과 지리산 죽전 등을 보냈다.²³⁾

B-2. 후고구려 태조 무인(918) 6월에 궁예가 죽고, 태조가 철원경에서 즉위했다.²⁴⁾

그리고 『삼국사기』 궁예전에는 궁예가 몰려나게 된 동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궁예의 몰락이 궁예가 강씨 부인을 죽인 이후로는 의심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분노하는 일이 많아져, 여러 벼슬아치와 장수들이나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고하게 도륙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부양과 철원 사람들이 그 고충을 견디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918년에 발견된 이른바 ‘王昌瑾의 古鏡文’을 근거로 하여 왕건과 그의 휘하 장수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왕건 일파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부양과 철원의 민심(衆心)을 반영하였다는 표현이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고경문을 번역한 宋翕弘 등과 홍술(홍유)·백옥삼(배현경)·능산(신승겸)·복사귀(복지겸) 등이었다. 송함홍 등은 고경문의 번역을 거짓으로 꾸며 궁예에게 보고하였고, 홍술 등은 6월에 궁예에게 왕건에게 찾아가 혁명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왕건은 이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23) 『삼국유사』 권2 기이(하) 후백제 견훤.
24) 『삼국유사』 권1 왕력.

C. 나는 충성과 순직으로 자처하거니와 지금 왕이 비록 사납고 나라가 어지러우나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대저 신하로서 임금자리에 갈 마드는 것은 이야말로 혁명일 것인 바, 나에게 실로 그런 덕이 없는 터에 감히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일을 본받겠는가?²⁵⁾

왕건의 이 사양은 본인의 뜻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사를 하기 위한 명분을 민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다. 왕건이 거사에 참여하기 위한 명분은 부인 유씨의 발언이었다.

D. 어진 이가 어질지 못한 이를 치는 것은 예로부터 그리하여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논을 들어보니 저 조차도 오히려 분이 치밀어 오르거늘, 하물며 대장부로서야 이를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홀연히 변한 것은 천명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²⁶⁾

부인 유씨는 혁명은 민심을 얻은 천명이라고 하여 갑옷을 왕건에게 건네며 거사를 강요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사는 918년 6월에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도 전광석화와 같다. 부인 유씨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붙들어 옹위하고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전 모의도 없이 6월의 어느날 밤에 바로 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E. 앞서 인도하는 이에게 “왕공께서 이윽고 정의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이리하여 앞뒤에서 분주히 달려나와 따르는 이들이 그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으며, 게다가 먼저 궁성 문밖에 도착해 북을 두드리고 떠들어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1만명이었다. 그리하여 왕(궁예)이 이 말

25)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26)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급기야 변장을 하고 산림 속으로 도망해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 부양의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²⁷⁾

위의 내용에서처럼 『삼국사기』 궁예전에서는 궁예에 대하여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이미 저버렸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궁예가 자신의 근거지인 부양에서 '부양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하여 왕건이 민심을 얻었음을 강조하는 필법을 구사하고 있다.²⁸⁾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 이토록 민심의 획득과 천명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토록 『삼국사기』에서 강조했던 궁예의 실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면목은 과연 무엇일까? 『삼국사기』 궁예전에 수록된 궁예의 실정에 관한 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실제 『삼국사기』에는 왕건의 거사를 중심의 흘변이라고 하였지만, 궁예의 실정에 관하여 상당히 일찍부터 거론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궁예의 실정이라기보다는 『삼국사기』 찬자의 논평이거나 궁예와 견해를 달리 하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F-1. 천복원년 신유(901)에 선종이 스스로 왕을 일컫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에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깨뜨렸던 까닭에 평양의 옛 도움이 피폐해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라고 하였다. 대개 그가 태어났을 때 버림받았던 것을 원망했던 까닭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한번은 남쪽을 돌아다니다 홍주의 부석사에 이르렀을 때 벽에 신라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쳤는데, 그 칼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²⁹⁾

F-2. 천우 2년 을축(905)에 새 수도로 들어가 관궐과 누대를 수축하는데 한껏 사치를 다하였다. … 선종은 세력이 강성함을 스스로 자만했으며, 아울러 집어삼키려는 뜻으로 나라 사람들에게 신라를 ‘滅都’라 부르게 하고, 무릇 신라에서 오는 이들은 모조리 죽여 버렸다.³⁰⁾

F-3. 주씨의 후량 건화 원년 신미(911)에 연호 성책을 고쳐 수덕만세 원년이라 하고, 국호를 태봉으로 고쳤다. … 궁예는 직접 불경 20권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요망하여 하나같이 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었다. 때로는 단정하게 앉아서 이를 강설하니 승려 釋聽이 이르기를 “모두 요사스러운 말이요 괴이한 이야기로 가르침 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선종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쇠뿔동으로 쳐죽였다.³¹⁾

F-4. 건화 4년 갑술(914)에 연호 수덕만세를 고쳐 정개 원년이라고 하였다. 태조를 백선장군으로 삼았다. 정명원년(915)에 부인 강씨가 왕이 그릇된 일을 많이 하는지라 정색을 하고 간하자, 왕이 미워해 말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니 웬일이냐”라고 하였다. 강씨가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왕은 “내가 신통력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뜨거운 불로 쇠방망이를 달구어 음부에 처넣어 죽였으며, 그녀의 두 아들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이후로는 의심이 많아지고 급작스럽게 분노하니, 여러 벼슬아치와 장수들이나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고하게 도륙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부양과 철원의 사람들이 그 고충을 견디지 못하였다.³²⁾

궁예의 실정에 대한 내용은 위의 네 기사이다. 공교롭게도 궁예가 연호나 국호를 바꾸거나, 도움을 옮긴다는 등 국가의 어떤 개혁의지가 보이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궁예에 대한 실정의 내용이 나온다.

27)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28) 『고려사』에는 ‘궁예는 암곡으로 도망하여 이틀 밤을 머물렀는데 허기가 심하여 보리 이삭을 몰래 끊어 먹다가 뒤이어 부양민에게 살해당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여 거사 이틀만에 백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고려사』 권1 태조세가).

29)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30)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31)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32)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F-1의 내용은 궁예가 신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F-2도 신라에 대한 궁예의 생각이다. F-3은 궁예의 불교에 대한 비판이다. F-4는 부인 강씨를 죽인 일이다.

그런데 위의 네 기사는 모두 특정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특별히 민심의 반영은 보이지 않는다. F-1의 내용은 궁예가 신라왕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구려를 세웠다고 했는데, 앞문장과 명분상 맞지 않은 『삼국사기』 찬자의 말이다. F-2는 궁예가 신라를 병탄할 목적으로 신라에서 귀부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삼국사기』 찬자의 평이다. 궁예가 F-3의 내용 가운데 '요망하여 바르지 못하다'는 평도 『삼국사기』 찬자의 것이다. 그리고 궁예의 불교에 대해서도 석충을 인용하여 '요사스럽고 괴이하다'고 평하고 있다. F-4의 내용은 부인 강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부인 강씨가 말한 궁예의 그릇된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위의 F1~F-4의 궁예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 『삼국사기』 찬자의 논평만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궁예의 어떤 처사가 실정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F-1에서는 이미 관련없는 서술을 찬자가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F-2에서도 불경의 어떤 내용이 용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강설의 어떤 내용을 석충이 요사스럽다고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F-4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씨 부인이 말한 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궁예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논평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부정적인 논평만 있을 뿐이다. 궁예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평은 선입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선입견은 바로 신라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삼국사기』 권50의 말미에 있는 찬자의 궁예와 견훤에 대한 논평이다.

신라의 운세가 다하고 올바른 도리를 잃어 하늘이 돕지 않고 백성들도 불지 않았다. 그러자 못 도적들이 그 틈을 타서 마치 고슴도치 털처럼 일

어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자는 궁예와 견훤 두 사람뿐이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였는데 도리어 제 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의 화상까지도 베어버리기에 이르렀으니 그 어질지 못함이 아주 심했다. 견훤도 역시 신라의 백성에서 일어나 신라의 국록을 먹으면서 불칙한 마음을 품고 나라의 위태함을 다행히 여겨 도움을 침략하고 임금과 신하들을 마치 새나 짐승 죽이듯 했으니, 참으로 천하에서도 가장 악한 자였다. 그러므로 궁예는 자기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견훤은 자기 자식에게서 재앙을 입었다.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니 또 누구를 탓하라. 비록 項羽나 李密 같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도 한나라와 당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 하물며 궁예나 견훤같이 흉악한 자가 어찌 우리 태조에게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³³⁾

위의 내용으로 보면 『삼국사기』 찬자의 궁예와 견훤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취해 온 신라에 대한 반역에 관한 것뿐이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서,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서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왕건은 신라의 정통을 이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삼국사기』 찬자들의 의도가 있다. 왜 왕건이 신라의 장수가 되지 않고 궁예의 장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신라의 정통을 지키려면 왜 신라에 투항하지 않고 신라를 고려에 병합했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은 없다. 이 논평은 단지 고려의 통합을 당위화 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논평에 따르면 왕건의 혁명 명분은 궁예의 반신라정책을 명분으로 한 것일 뿐 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³⁴⁾

지금까지 정사류에 소개된 왕건의 궁예 축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삼국사기』 찬자들은 궁예의 실각이 그 지역민들에 의한 중심을 잃어서 발

33) 『삼국사기』 권50 견훤전, 『삼국유사』 권 제2 기이하 후백제 견훤.

34) 그 밖에 민생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논평으로만 보면 반신라정책이 주된 것으로 이해된다.

생한 것으로 의식화 하려고 했다. 궁예의 실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사치스럽다거나, 불경의 내용이 요망스러웠다는 것은 당시인들의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집단에 의한 조작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삼국사기』 찬자들은 백성을 학대한 궁예를 천명에 의하여 백성들이 심판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연표에서는 궁예가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전에서는 구태어 '부양과 철원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내용과 궁예가 '부양의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2)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구비전승

철원에 있는 궁예관련 설화 가운데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것이 있다. 궁예의 최후에 대하여 정사류에는 백성에게 맞아 죽은 왕으로 비참하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관의 평가도 나쁜 것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도덕적 논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은 왕건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만 있을 뿐, 궁예측의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사류의 기록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경우는 없다.³⁵⁾ 그것은 어쨌든 한국사학계에서의 통설은 정사류의 인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궁예의 역사를 복원하는 측면보다는 정사류의 평가를 따라 왕건이라는 위대한 군주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궁예측의 자료가 없는 한 왕건 중심의 자료만으로 당시의 실상을 그린다는 것은 다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궁예관련 설화는 궁예측의 입장을 다소 대변하는 자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³⁶⁾

35) 유인순이 '궁예왕에 대한 신화성의 부정과 훼손이야말로 승자의 횡포가 절정을 보이는 것'(『궁예왕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제21집, 2002, 80쪽)이라고 한 내용 참고.

36) 궁예관련 문헌과 구비전승들을 정리하다보면, 역사는 냉혹함 그 이상의 횡포함까지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하게 된다. 문자 사용 유무로 계층이 엄격히 구분되던 시절,

설화에 나타난 궁예에 대한 정서는 궁예를 악의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설화에서는 궁예의 실정에 대해서 궁예 본인 보다는 그의 부인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의 구비전승은 정사류에서는 궁예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을, 그의 부인에게 돌리고 궁예를 감싸자는 의도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사류에서는 궁예가 자신의 부인이 간음을 하였다고 뒤집어 씌워 그녀의 소생인 두 아들과 함께 죽었다³⁷⁾고 하였지만, 설화에서는 그의 부인이 폭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G. 그 여우(강씨부인)가 썩은 사람의 고기를 좋아하는 데, 임금님은 여우에게 반하여 여우가 하라는 데로 하여 억울하게 죽이기를 많이 하였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한다. 결국에 송파에서 가져온 삼족구에 의해 여우가 죽게 되었다.³⁸⁾

이 설화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철원지역에서는 궁예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 부인의 잔인함이 죽임의 원인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부인은 사람이 아닌 구미호라고 하였지만, 이 지역사람들은 궁예의 포악함을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대상에서 찾고자 하는 궁예에 대한 일종의 연민을 보이고 있다.

왕건일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정사류가 편찬되었다면, 철원의 정서에서는 궁예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는 궁예가 도움을 주는 영험한 존재로 인정되기도 한다.³⁹⁾

지배층인 식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는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던 피지배 계층의 증언을 무시하거나 변조시키기는 여반장이었던 것이다 (유인순, 『궁예왕 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제21집, 2002, 79-80쪽).

37) 궁예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죽인 이유를 정치적인 데서 찾고 있다(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38) 『강원전통문화총서』-설화(최웅·김용구, 국학자료원, 1998, 487-489쪽). 내용이 다소 길어 요약하였음.

종래에는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 관찬사서가 아니면 일종의 미신이나, 황탄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여 사료로서의 취급이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관찬사서는 왕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구비전승에 의한 자료는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한계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정서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진실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는 않을까?⁴⁰⁾

구비전승에 따르면 정사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궁예는 왕건일파에 의하여 하룻만에 궁궐을 비우고, 쫓겨난지 이틀 만에 부양민들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정사류에 궁예정권이 하룻만에 전복이 되고, 이틀 후에 백성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기사는 다분히 의심스럽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맞아 죽은 사람이 궁예라는 것을 알았을까? 정사류의 기사는 궁예를 잔혹하게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그려 민심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보도의 통제는 이 시기에는 현대보다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구비전승에 따르면 궁예는 울음산(명성산)에 성터를 쌓고 상당한 기간을 왕건과 전투를 했다고 한다. 과연 울음산에서 있었던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을까? 울음산에서의 궁예와 왕건의 대치상황을 통하여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H. 궁예는 보개산성에서 패하자 자신을 따르던 군졸들과 함께 밤중에 궁성을 빠져나와 지금의 한탄강과 군탄리를 경유하여 명성산에 은거했다고

39)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63-183쪽.

40) 철원과 포천 일대에 남아 있는 많은 구비전승들 가운데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이 전승들을 과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해야 할까? 아니면 이들을 정사류에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누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기록 아닌 구비전승으로 1000년 이상을 전해 온 지명설화에서 구체적인 위치까지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역사적 진실을 있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한다.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재기의 기회를 노린 것이다. 왕건은 이곳에서 궁예와의 전투에서 상당히 고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이 험해서 왕건은 창과 활만으로는 도저히 공격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때 백발노인이 밤에 밭을 갈면서 자신의 소를 왕건에게 비유하여 “왕건 태조같이 미련한 놈의 소야.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걸 허부적거리고 내가 넘어갈 거야. 바위돌이 이렇게 있으니까”라고 암시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성산의 형상이 소이니 정면 공격은 뿔로 막아서 성공하지 못함으로 후면 공격을 하라고 하여, 왕건은 비교적 평탄한 후면 공격을 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⁴¹⁾

위의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을 울음산에서 궁예는 왕건군의 포위를 견딘 것으로 여겨진다.⁴²⁾ 궁예가 명성산성에서 상당한 기간을 왕건과 대치 상황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⁴³⁾

구비전승은 비교적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의 정리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궁예가 어떻게 하여 도성에서 나와서 남쪽인 포천 일대에서 왕건과 대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명성산과 같이 오랫동안 거점으로 이용하였던 지역에는 여러 설화가 중복, 착종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지명들을 지역별, 시기별로 정리하여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41) 『강원전통문화총서』-설화-(최웅·김용구, 국학자료원, 1998, 489-490쪽).

42) 울음산 전설은 철원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전설인데, 몇몇 작가들은 몰랐거나 외면해 버려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인순, 「궁예왕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제21집, 2002, 108쪽). 철원의 대표적 설화라는 한 표현으로 생각하여도 좋을 것 같다.

43) 조현설은 ‘명성산은 궁예와 왕건의 최대 접전지였을 텐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 허구화되어 전승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앞의 논문, 163쪽). 유인순은 ‘보개산성과 명성산성에 있는 대궐터는 왕건에게 배신당한 고통과 치욕을 되씹으며 왕건군과 일시 대결하던 장소이고, 운악산성(일명 궁예성터)의 대궐터는 왕건군과 반년 이상에 걸친 혈전을 벌이던 곳이었다(유인순, 177쪽)’라고 했는데, 그 기간 설정의 근거를 잘 알 수가 없다.

이미 앞장에서 언급했지만 포천, 철원 및 평강의 궁예 최후와 관련된 설화는 일정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지역적으로 공통되는 것들이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천시 영북면 일대의 지명을 살펴보자.

I-1. 여우고개, 호현동(狐峴洞) : 산정호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우가 자주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는 궁예의 군사와 왕건의 군사가 이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여우처럼 엿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⁴⁴⁾

I-2. 망봉 : 산정호수 좌우에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이다. 궁예가 이 봉우리에 망원대를 높이 쌓고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왕건의 부하 신승겸에게 궁예는 대패하였다고 하며 궁예의 군사가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봉이라 부르게 되었다.⁴⁵⁾

I-3. 야단골, 야전골 : 다대울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왕건의 군사가 궁예의 군사를 쫓아 이곳에 이르렀을 때 망봉에서 망을 보는 궁예의 군사를 내려오라고 야단을 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벼락을 야단스럽게 많이 치는 곳이라 하여서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또다른 유래로는 궁예가 왕건에게 패하여 철원북방으로 패주하여 갈 때 이곳에서 왕건 군사의 급습을 받아 싸우게 된 곳이라 하여 야전골이라고도 불리되었다고 한다.⁴⁶⁾

44)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0쪽.

45)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219쪽.

46)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1쪽. 또 성동리산성(城東里山城)도 포천에서 철원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성은 많이 붕괴되었으나 일부 석벽이 남아있고 성의 높이도 7m에 이르는 곳도 있다. 『전국유적목록』에서는 이 산성이 궁예가 왕건에게 쫓길 때 하루 저녁 숙영하기 위하여 강북에서 일렬로 서서 돌을 전달해 쌓았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5쪽).

I-4. 항서받골 : 산정호수 아래 있는 골짜기이다. 궁예와 왕건의 결전에서 왕건이 궁예로부터 항복을 받은 곳이라 해서 항서받은 골이라 부르다가 항서받골이 되었다고 한다.⁴⁷⁾

I-5. 가는골(敗走골)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궁예의 군대가 왕건의 군대에게 패하여 지나간 길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패주골이라고 하는데, 이후 음운변화를 일으켜 '파주골'로도 불리게 되었다.⁴⁸⁾

I-6. 정승바위 : 삼형제바위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태봉국 궁예왕이 피신할 때 정승이 이 바위에서 망을 봤다하여 정승바위가 되었다고 한다.⁴⁹⁾

I-7. 사실골고개 : 호현동에서 이동면 도평리와 장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왕건에게 쫓긴 궁예가 명성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궁예의 군사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왕건에게 투항하였다고 하여 사실골고개라 부르게 되었다.⁵⁰⁾

I-8. 사실골 : 사실골고개 정상 남쪽에 있는 왕건에게 쫓긴 궁예가 명성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궁예의 군사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왕건에게 투항하였다고 하여 사실골고개라 부르게 되었다.⁵¹⁾

I-9. 궁예왕굴, 궁예침전 : 울음산 위에 있는 굴이다. 궁예왕이 왕건의 군사에게 쫓기어 은신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약 40여 명 들어 갈 수 있는 자연 동굴이다.⁵²⁾

47)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1쪽.

48)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7쪽.

49)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47쪽.

50)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4쪽.

51)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0쪽.

다음은 포천시 화현면 일대의 설화들이다.⁵³⁾ 이 설화들도 궁예와 왕건의 군사들의 전투 상황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J-1. 강사골(화현면 우시동)은 왕건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궁예가 격전을 벌였던 곳인데, 이 일대에 강한 군사들을 배치하였다고 한다. 강사골이라는 지명은 '강한 군사(強師)'에서 유래된 것이다.⁵⁴⁾

J-2. 벌앞골 : 운악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궁예가 왕건의 군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보라골의 변음으로 생각되며 큰 벌앞골과 작은 벌앞골이 있다.⁵⁵⁾

J-3. 화평장터, 태평장터 : 영선동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궁예와 왕건이 투석전을 벌일 때 운악산 높은 산에서 신선이 불을 비쳐준 이곳에 장이 서게 되었다. 신선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동경하는 평화의 이상향이기에 그 불빛이 닿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⁵⁶⁾

J-4. 피나무골 : 달인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궁예의 군사와 왕건의 군사가 대 육박전을 벌인 곳이라고 한다. 그때 군사들의 피가 흐르고 튀어서 나무마다 온통 붉게 물들었다고 하여 피나무골이 되었다.⁵⁷⁾

J-5. 아랫지재(坪村) : 윗말 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이다. 지치재라는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지재(芝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태봉국 궁예가 왕건에게 쫓기다가 투석전을 벌인 느릅내라는 곳에 쌓인 돌이 고개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고개 위쪽을 윗지재, 아래쪽을 아랫지재라 불러 오다가 왜때때 윗지재를 상촌으로도 부르고 아랫지재는 벌판에 있다고 하여 평촌으로 부르게 되었다.⁵⁸⁾

J-6. 윗지재(上村) : 두문동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치지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지재(芝岨)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궁예가 왕건에게 쫓기다가 투석전을 벌인 느릅내라는 곳에 쌓인 돌이 고개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고개 위쪽을 윗지재 또는 상촌(上村)으로도 부르고 있다.

J-7. 설원골 : 운악산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궁예의 군사가 나라가 망했다고 서럽게 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⁵⁹⁾

위의 지역의 지명 가운데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각각 같은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명들이 전투시 대치 상황을 알려 주는 여우고개(I-1)나 벌앞골(J-2)과 같은 관측 및 탐색과 연관이 있는 지명이 있다. 그리고 전투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하는 야전골(I-3)이나 화평장터(J-3) 같은 지명이 나온다. 한편 전투가 치열했음을 알게 하는 피나무골(J-4)이 있다.⁶⁰⁾ 그리고 전투 과정 중에 투석전을 벌였음을 확인(J-5와 J-6)할 수 있는 지명도 있다. 그리고 전투의 결과를 알게 하는 항서받골(I-4)이 있다.

그런데 영북면과 화현면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영북면과 화현면 사이에는 영중면과 일동면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중면과 일동면 등지에는 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유달리 영북면과 화현면은

52)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4쪽.

53) 기본적으로 『포천의 지명유래집』(포천문화원, 2006)에서 추출하였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려고 했으나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가감을 하였다.

54)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0쪽.

55)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6쪽.

56)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4쪽.

57)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8쪽.

58)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601쪽.

59)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6-587쪽.

60) 화평장터 전투에서 군사들이 흘린 피가 마을의 나무에 스며들었다고 해서 전해지는 유래이다. '아이구 아파'하고 피나무골에서는 비오는 날이면 고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한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9쪽).

두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관련 지명이 많다. 따라서 두 지역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수 있다. 그러므로 영북면과 화현면에 전투관련 지명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전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북면 명성산성이 있고, 화현면은 운악산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개산성에서 일시 머물렀던 궁예는 왕건군에게 쫓겨 명성산성과 운악산성을 장악한 뒤 이곳을 근거로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왕건군은 계속하여 이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 접전 장소가 운악산성 일대에서는 화평장터였고, 명성산성 일대에서는 야전골이었다. 이 총공세에서 마침내 궁예군은 패퇴하고 만다. 설화의 순서상 먼저 전선이 붕괴된 곳은 운악산성이었던 것 같다. 피나무골의 설화는 거의 전멸에 이른 궁예의 군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운악산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잔류병사들과 명성산성에서 합세하여 궁예는 최후의 일전을 불사 하였던 것 같다. 향서받골이라는 지명이 명성산성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결국 궁예는 향서받골에서 항복을 하고 왕정량을 건너 북향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¹⁾ 이 과정을 운악산성전투 또는 명성산성전투로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이 양 전투에서 패퇴한 궁예는 이제는 평강 방향으로 밀려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궁예의 퇴각로는 철원의 동부지역이었던 것 같다. 명성산성에서 패퇴하여 평강 방향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철원군에 남아있는 관련 설화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K-1. 개적봉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지포리. 궁예왕이 왕건에게 패주

61) 궁예 일행은 가는골을 지나 왕정량(경기도 포천)을 건너 북행을 시도 하였다. 문혜리 앞 쪽에 있는 한탄강의 지류를 건너는 데 왕이 바지를 걷고 물을 건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하여 피신하였다는 유래가 있다.⁶²⁾

K-2. 군탄리(軍歎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궁예가 왕건의 군사들에게 쫓겨 명성산(鳴聲山-울음산)으로 갈 때 이곳을 지나며 한탄(恨歎)했다고 하여 유래가 되었다. 군탄리는 명성산에서 오성산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⁶³⁾

K-3. 느치고개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군탄리.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 시루메 고개를 흐느껴 울며 넘었던 고개라고 한다. 눌치고개라고도 한다.⁶⁴⁾

K-4. 왕재고개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갈리. 왕정고개와 같이 옛날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 명성산에서 먹실쪽으로 넘어 평강 방향으로 도주하기 위해 궁예가 넘어 갔다는 고개이다.⁶⁵⁾

K-5. 시루메고개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군탄리. 개적봉에서 쉬면서 한숨을 돌린 후 시루메 고개를 넘어가며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⁶⁶⁾

K-6. 한잔모텔이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군탄리에 있는 골짜기. 왕건에게 쫓겨 달아나던 궁예왕이 개적봉에서 쉬면서 한숨을 돌렸다는 골짜기이다. 일설에는 한숨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⁶⁷⁾

위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궁예의 군사가 슬퍼하면서 패주하는 모습만을 그리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철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지명설화는 느치와

62)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1쪽.

63)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4쪽.

64)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8쪽.

65)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8쪽.

66)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6쪽.

67)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34쪽.

같이 흐느낀다거나, 시름에 잠겼다거나(시루메고개), 한숨을 쉰다거나 하는 등 패잔병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다. 이들 지명이 명성산성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으로 패퇴하면서 남긴 흔적들로 보인다.⁶⁸⁾ 왕건군의 추격전으로 궁예군이 패퇴하여 가는 상황을 알려준다.

포천 일대에서의 전투에 패하여 북으로 향한 궁예는 평강군에 이르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평강군에 남아 있는 지명설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L-1. 옹주포(翁主浦) 평강. 패한 궁예왕의 옹주가 자살한 곳이다.⁶⁹⁾

L-2. 갑기천(甲棄川) : 강원도 평강군에 있다. 궁예는 왕건으로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왕건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힘에 부치지 달아났는데 이곳에서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궁예는 이 일대에서 배가 고파 보리이삭을 먹다가 부양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삼방과 안변의 경계에 궁예의 무덤이 있다.⁷⁰⁾

L-3. 검불랑(劍拂浪) : 강원도 평강군에 있다. 궁예왕이 왕건의 군대와 직접 격전을 하다가 칼을 내던진 곳이라고 한다.⁷¹⁾

L-4. 돌터미 : 궁예를 축출한 왕건은 삼방 일대의 백성들에게 궁예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궁예를 찾아 돌팔매를 하였고,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리지 않고 돌을 던져 궁예를 맞추었다고 한다. 돌팔매는 궁예가 죽은 뒤에도 그의 시신위로 계속 행해졌다. 그렇

68) 춘천시의 삼악산 성지에도 궁예의 최후와 관련 있는 설화가 있다. 궁예의 패잔병들 일부가 임시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설화에 따르면 궁예는 왕건에게 쫓겨 샘밭-삼한골을 거쳐 이곳에 이르러 피신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4-225쪽).

69)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8쪽.

70)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0쪽. 『輿地圖書』, 강원도 평강고적, 『平康邑誌』, 규장각10975, 1908년경.

71)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1쪽.

게 하여 돌이 더미로 쌓이게 되었고, 여기에서 돌터미라는 동네이름이 생겨났다.⁷²⁾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평강에 있는 지명과 그 유래는 궁예의 마지막을 보여 주고 있다. 궁예는 이곳에서 갑옷을 벗어 던져 버리거나(L-2), 칼을 버린다(L-3). 그리고 왕건의 군사가 추격전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⁷³⁾ 궁예의 옹주도 자살을 한다(L-1).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궁예가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설화(L-4)도 있다.⁷⁴⁾ 궁예가 부양(평강)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고려사』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고려사』와 이유가 다르다. 『고려사』의 내용을 참고해 보자.

M. 궁예는 암곡으로 도망하여 이틀밤을 머물렀는데, 허기가 심하여 보리 이삭을 몰래 끊어 먹다가 뒤이어 부양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⁷⁵⁾

위에서와 같이 『고려사』에는 궁예가 백성들의 보리 이삭을 끊어먹다가 죽었다고 하여 왕건의 선동으로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처럼 평강에서의 지명설화는 궁예가 죽음을 맞았거나 재기가 불가능해진 지역이 이곳이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2)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8쪽.

73) 유인순은 평강 지역에서의 궁예설화가 왕위찬탈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분명하지만, 항쟁과 후퇴와 항복을 거친 뒤 찾간 태봉국의 '마지막 보루·영원한 휴식처'라고 하였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9쪽). 그러나 설화가 보여주는 내용은 왕건군의 추격으로 궁예군이 평강으로 싸우지 않고 퇴각하는 상황이다.

74) 이 내용은 『고려사』의 내용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남선의 『풍악기유』에 소개된 바 있는 것처럼 삼방에서 자살하였다는 설화도 있으므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다.

75)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元年 8月 癸亥條.

이와 같이 궁예와 관련된 전투설화는 궁예의 최후가 왕건에게 단숨에 전복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왕건이 궁예를 축출한 뒤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은 궁예 왕건 정권교체기의 상황이 매우 복잡했음을 알려준다.

N-1. 熊州와 運州 등 十餘州가 反亂을 일으켜 百濟로 귀부하였다.⁷⁶⁾

N-2. 伊昕巖은 활 쏘고 말 타는 것이 없고 다른 재주도 없고 식전도 없었다. 이익을 탐하고 벼슬에 욕심이 많은 자로서 궁예를 섬겨 교활한 방법으로 등용되었다. 그리고 궁예 말년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응주를 습격 점령하고 있었는데, 태조가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야심을 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하여 왔는데, 그 휘하의 병사들은 대부분이 도망쳤으며 응주는 다시 백제의 영토로 되었다.⁷⁷⁾

위의 내용을 보면 왕건의 정권 획득 이후에 일련의 반왕건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순식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왕건에게 귀부하지 않았다.⁷⁸⁾ 이러한 상황은 정사류에 기록된 민심이 일순간에 바뀌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는 내용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⁷⁹⁾

그보다는 오히려 설화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건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가 상당한 기간 전개된 뒤에 궁예의 패배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위의 설화들을 근거로 궁예의 최후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전투는 궁예도성을 선공한 왕건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왕건과 그의 추종세력이 궁성 앞으로 몰려갔던 것으로 추

76)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元年 8月 癸亥條.

77) 『高麗史』 卷127 熱傳40 叛逆1 伊昕巖傳.

78) 『고려사』 권92 열전5 왕순식.

79) 이재범, 『태조즉위시의 사회동향에 관한 일고찰』, 부춘 신연철 교수 정년기념논총, 일월서각, 1995.

정된다. 그런데 이 공성전에서 선공인 왕건의 군대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지 않다. 만약 왕건의 군대가 압도적이었다면, 궁예의 군사는 북쪽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성전에서 힘이 딸린 궁예는 재기를 위해 보개산성⁸⁰⁾을 거쳐 남쪽의 산성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다.⁸¹⁾ 그 일대가 포천군 영북면과 화현면으로 이 지역에는 각각 명성산성과 운악산성이 있다. 궁예는 이 두 성을 거점으로 왕건군과 상당기간 대치하였을 것이다.

이 산성 공략에서 왕건이 고전하였음은 앞의 설화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왕건은 후사면으로 기습을 하여 활로를 열고 궁예의 군대와 대접전을 펼쳤던 것 같다. 처음 운악산성이 함락되고 다시 명성산성에서 집결하여 사력을 다한 전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승기를 잡은 왕건은 철원 일대를 경유하여 평강으로 패주하는 궁예를 추격하게 된다. 그리하여 궁예는 마침내 평강에서 재기불능의 상태에 처하게 되어 무기를 버리고 갑옷도 버린채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 같다.

80) 보개산성은 궁예와 관련된 많은 설화가 있다. 성 이름도 궁예왕대각대성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성 안의 태궐터, 우물 등이 다 궁예가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헌상 궁예가 축조하였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다. 단지 이곳에서 궁예와 왕건의 군대가 접전하였다는 전설은 있다. 보개산성을 명성산성과 비교해 보면 궁예는 명성산성으로 가지 말고 보개산성에서에서 결전을 벌였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성규모도 보개산성이 크고 석축의 규모 등 전략, 전술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궁예가 왕건에게 배신당한 고통과 치욕을 되씹으며 일시 대결하던 장소로 보고 있다(이재, 『철원일대의 궁예관련 성곽 재검토』,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15-116쪽). 궁예는 보개산성에 잠시 머물렀다가 명성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7쪽).

81) 처음 이동경로를 그렇게 보고자 하는 이유는 국수봉과 북바위와 같은 설화가 이 일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와 유인순 등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국수봉(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궁예가 도읍이 있는 철원에서 왕건에게 쫓겨나 고남산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데 왕건이 그곳까지 추격해 오자 배가 고파서 그 산에서 국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북바위, 북암동(관인면)은 하랑골 북동쪽에 있는 큰 바위로 궁예가 왕건과 싸울 때 이 바위에서 북을 쳐 군사를 움직였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포천의 지명 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54쪽). 이 일대에서 정규군이 전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궁예관련 설화는 궁예의 최후에 대하여 정사류 사서를 달리 해석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궁예관련 설화대로라면 궁예·왕건 정권교체는 내전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예의 최후는 궁예도성에서 시작하여 보개산성을 거쳐 명성산성과 운악산성을 거점으로 전개되었던 전쟁의 결과였다. 그 전쟁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사류 사서에서 소외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내용을 추상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진다. 비록 구비전승으로 비문서 자료라는 한계는 있으나, 그 상징성이 내포하는 역사적 의미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결 론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지명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궁예의 최후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먼저 궁예와 관련된 설화들의 분포상황과 그 특징을 찾아보았다. 그리하여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먼저 설화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의 활동시기와 관련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안성은 그의 성장기, 철원과 평강은 그의 전성기와 패퇴기, 포천의 영북면과 화현면은 궁예와 왕건의 전투시기에 관한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조작의 형태로 보기에 어렵다.

다음으로 궁예관련 설화의 구체성이다. 특히 궁예와 왕건과의 전투상황은 매우 상세하다. 비록 구비전승이라고는 하지만, 후사면의 평탄한 지형을 찾아 기습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는다. 그리고 고대 전투의 대표적인 양상인 투석전에 대한 상황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성이다. 궁예와 성장기에서부터 멸망까지 지역적으로 중

복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재단사에 의하여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전송되어 온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는다. 성장기의 안성, 전성기의 철원과 같이 설화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궁예와 관련된 설화에서 일정한 역사적 진실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궁예설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궁예의 최후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궁예는 처음 궁예도성을 급습한 왕건 군의 선공으로 도성을 탈출하여 포천군 관인면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보개산성에서 일시적으로 왕건군과 대치하였다가, 이곳에서 다시 패퇴하여 운악산성이 있는 포천시 화현면과 명성산성이 있는 영북면 일대로 밀려 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마지막의 혈전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전개한 결과, 많은 군사를 잃고 명성산성만을 거점으로 상당한 기간을 저항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곳에서 배후의 기습을 당하여 항서받골에서 항복을 하고, 패주골로 하여 평강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왕건군은 궁예를 계속 추격하여 평강 일대에서 섬멸전을 전개하였다고 보여진다. 궁예는 전투 중에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자결을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일대의 주민들은 궁예 묘를 세워 돌보아 왔다.

구비전승을 통해 본 궁예의 최후는 왕건과의 처절한 전투로 끝이 났다. 그리고 여기서의 궁예는 실덕하여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한 군주만은 아니었다. 궁예를 추종했던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애정과 연민이 있는 인물로 인정되고 있다. 그의 무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었던 흔적이 있다.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 이행기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궁예의 최후는 실덕한 왕으로서 마치 민중 봉기와 같은 형태로 일시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건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거쳐 멸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교체는 한국사에서 내전이라고 할 만한 사실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구

비전승을 사료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학계의 정서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⁸²⁾ 보다 엄정한 현지답사와 고증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 교체 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⁸³⁾ 구비전승의 역사성에 대한 재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질정을 바란다.

(원고투고일 : 2007. 2. 5,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궁예, 왕건, 보개산성전투, 명성산성전투, 운악산성전투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of *Gungye* in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 The Fall of King *Gungye* seen through his Geographical Legends –

Lee, Jae-bum

Gungye is the representative famous person in ancient history. He was described as most atrocious and abnormal person in Korean authentic history. He carries a different image in legen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authentic history and a legend about *Gungye*. The former is a vehicle to emphasize the authenticity of the king through government controlled history, the latter is a tradition carried down over generations among ordinary people in a limited local area.

Many geographic names related *Gungye* found wide spread in *Cheorwon*, *Pocheon*, *Pyeong-gang* areas. Those names show the fall of King *Gungye*. The reason of *Gungye*'s fall is because of his defeat in a battle with *Wang-geon* who had betrayed him. And geographic legends let us recognize such a situation. There was a big battle between *Gungye* and *Wang-geon*. We can find the battles of *Bogae*, *Myeongseong* and *Wunak* Castles. The *Gungye* related facts found in the legends are those which you could not find in the authentic history.

And we can recognize the value of *Gungye* related legends as historical materials which could be used to restore the historical image of that period. Historical reassessment or recognizing on *Gungye* should be carried

82) 유인순은 '역사의 기록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궁예왕에 관해서만은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83쪽)'라고 하여 궁예에 관한 여기서의 역사 기록은 정사류를 말하는 것 같다.

83) 궁예와 관련된 연구물들과 자료들의 수집이 많이 진척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집 및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out simultaneously with a proper evaluation process on legends or traditions.

Key Words : *Gungye*, *Wang-geon*, The Battle of *Bogae* Castle, The Battle of *Myeongseong* Castle, The Battle of *Wunak* Castle